돌봄 공백·학업 경쟁…호남권 청소년 절반 '저녁이 없는 삶'

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 후 현황'
교과 학원 27.1% 3년 전보다 ↑
10명 중 1명 '밤 10시 이후 귀가'

청소년에 대한 돌봄 공백과 학교 학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호남권 청소년은 절반 정도만 평일 저녁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 저녁(오후 6시~6시 59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우리 집'을 꼽은 호남권 청소년은 2024년 기준 52.9%로, 3년 전(2021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집에 이어 저녁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는 '교과목 관련 학원'으로 3년 새 비율이 23.4%에서 27.1%로 증가했다.

태권도·합기도 등 운동학원(스포츠클럽) 7.0%, 미술·음악 학원 2.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아동센터·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저녁을 보내는 청소년은 3년 새 2.1%에서 0.6%로 줄었다.

오후 8시 이후에도 학원(예체능 포함)에 있는 청소년은 13.1%에 달했다.

평일 가장 늦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물어보니 10명 중 1명(9.5%)은 밤 10시 이후라고 답했다.

교과목 학원을 3개 이상 다니는 청소년 비율은 3년 새 2배(8.5→17.8%)로 뛰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33.4%에서 25.6%로, 7.8%포인트 줄었다.

예체능 학원을 3개 이상 수강한 비율도 3.3%에서 7.1%로 2배 늘었고, 아예 다니지 않는 학생은 52.3%에서 46.3%로 감소했다.

평일 집에 온 뒤 청소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11.8%에서 16.1%로 늘었다. 평일 부모님이나 어른 보호자가 맞이해주는 비율은 67.9%로, 3년 전 70.5%보다 감소했다.

청소년이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평일 귀가 후 주로 하는 활동을 물어보니 절반(49.5%)은 영상 미디어를 보거나 게임,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 학교수업 이외에 디지털 기기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27.5%에 달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평소 휴대 전화로 주로 하는 활동은 영상 미디어 보기가 35.0%로 가장 많았고, 게임(28.7%), 소셜미디어(13.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평일 저녁 식사를 집에서 먹고 있었지만, 편의점·분식집·식당(2.4→2.9%)에서 먹거나 굶는 비중(0.5→0.8%)이 3년 새 소폭 늘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저녁을 먹는 비율은 3.3%에서 1.2%로 줄었다.

평일 방과 후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만족스럽지 않다·전혀 만족스럽지 않다)은 12.9%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아우르는 초·중학생 1112명을 포함한 전국 96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남구·북구 타운홀 미팅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11일 오후 광주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기자 노트

행정통합 특별법에 특별한 배려를

정병호 정치부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의가 마무리됐고,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임위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보여준 태도, 특히 '형평성'을 내세운 칼질이 통합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380여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묻지만, 현실을 외면한 질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돼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 척박한 땅에서 광주와 전남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목록'이다.

정부는 광주·전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삭제' 의견을 표명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정부의 총괄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수도권 공룡'과 싸워야 할 지방에, 다른 지방과 똑같은 재래식 무기만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치로 내건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 거점을 육성해 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키워 지방소멸을 막고 성장지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있다. 바로 '기계적 형평성'의 파기다. 수도권 쪽으로 수직에 가깝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기울어진 쪽을 더 높이 들어 올려주는 '차등적 지원'과 '파격적 편애'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에서 특별법 119개 조문을 일괄 부정하기보다, 국가가 반드시 총괄해야 할 영역과 지역에 맡겨도 되는 영역을 나눠야 한다.

예컨대 전력계통처럼 국가 단위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기준은 중앙이 갖되, 일정 규모 이하 인허가·입지·인센티브 설계는 특별시에 위임하는 '조건부 분권'방식이다.

그 대신 성과평가·일몰·환산(타 지역 확대) 장치를 법에 박아 형평성 논쟁을 제도화해야 한다.

4년 20조 지원 같은 숫자도 구호가 아니라, 통합 초기 비용(시스템 통합·인사·청사 분산 운영)과 균형발전기금 재원까지 포함한 법적·재정적 장치로 담보돼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 감면권,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권 등은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다.

119개 조항은 이러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이를 '중앙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삭제하는 것은 통합하지 말라는 소리나 진배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5극 3특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특례=특혜'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 최소한 광주와 전남에 쥐여줄 권한이 배타·차별적이어서 특혜 시비가 붙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에서 진정한 메가시티가 탄생할 수 있다. 지금 정부 관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관리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 목줄'이다. /jusbh@kwangju.co.kr

전남도, 보육 정책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올해 5300억원 투입

전남도가 올해 5300억원을 투입,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5303억원을 들여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공공책임 강화,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또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심의·의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경우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28만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8000원 인상키로 했다.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월 3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남도 자체 지원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에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영국 'Arm' 인재 양성소 개설

광주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IP) 기업인 영국 '암(Arm)'의 인재 양성소 개설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강기정 시장과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GIST 내에 '지스트-암(GIST-Arm) 스쿨'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향후 5년간 총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Arm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특화 교육 과정을 도입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도(IP)만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스승' 같은 존재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GIST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Arm의 글로벌 기술력이 결합하면 광주가 세계적인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91호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431-10번지 일원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34	8	국지도로	140	서석동 422-22	지산동 518대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534	8	국지도로	230	서석동 431-10	지산동 518대	일반도로	-	-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534	소로2-534	• 도로 변경 - 폭 : 8.0m → 8.0m - 연장 : 140m → 230m	• 주변 지역 접근성 강화 주민 정주, 여건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2. 12. ~ 2. 26.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동구청 도시공간계획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도서 : 광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안)

3.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공간계획과 (☎ 062-608-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공고(2차)

당회사는 2026년 01월 26일 주주서면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6년 03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2일

주식회사 씨에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3층 (쌍촌동)
청산인 이 찬 택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2월 5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주식회사 호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34(월계동)
청산인 조 영 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6년 02월 06일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02월 10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주식회사 홍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봉대로 66-1
청산인 홍 성 엽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원스틸산업개발(이하"갑"이라함)와 일등전력주식회사(이하"을"이라함)은 각각 2026년 02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 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갑" **주식회사 원스틸산업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66번길 8, 1층(용두동)
대표이사 이 원 철

"을" **일등전력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30번길 3,104호(본촌동)
대표이사 한 정 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화섭(460212-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천지인로93번길 12-13 (오치동)

피상속인 망 이화섭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6느단3064호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 상속인 : 이재철(770416-1XXXXXX)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 116동 2302호 (화정동, 더샵염주센트럴파크)
• 신고기간 : 2026. 2. 12. ~ 2026. 4. 24.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재철의 주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유연순(350303-2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신기길 17

피상속인 망 유연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6느단5058호로 신청하여 2026년 2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12일

• 상속인 : 1. 김해민(630801-1XXXXXX)
부산 사하구 비봉로 42, 204동 2408호 (신평동, 한신아파트)
2. 김명숙(551227-2XXXXXX)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21번길 39, 103호(역곡동, 광백드림빌)
• 신고기간 : 2026. 2. 12. ~ 2026. 4. 24.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김해민의 주소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